

“비영남·비高大·재산 10억 이하로”

이 대통령, 인적쇄신 3원칙 정해 쇠고기 정국 극복·민심 잡기 안간힘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퇴에 따라 내부 인사검증팀을 가동하는 등 인적쇄신을 위한 후임 인선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민심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포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쇄신책을 내놓는 길만이 쇠고기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수렴, 인적쇄신에 나서는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 등 여권은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적쇄신 어떻게=이번 인선은 국무총리 교체 여부와 18대 국회 개원 지연 상황 등을 감안, 일단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한 뒤 개각을 후순위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비(非)영남', '비(非)고려대', '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당시 내각 및 청와대 진용을 갖추는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영(고대·소망교회

영남권), '강부자'(강남 땅부자) 인선이라는 비판을 다시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쇄신과 관련, 류우의 대통령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윤여준, 맹규권 전 의원과 함께 첫 청와대 인사 때 초대 대통령실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맹 전 의원은 신실될 정부특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수석으로는 박형준,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정종복 전 의원과 함께 현직 감사로 인수위에서 법무행정분과 법령정비팀장을 지낸 정선태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수석은 김석동, 진동수 전 재경부 차관 등이, 외교안보수석에는 현인택 고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각 인선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교체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나 호남 출신의 제3후보가 부각될 수 있

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는 농림부차관 출신인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 홍문표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근현 황우여 임해규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마하권에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한구, 이종구 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김석동 진동수 전 재경부차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적극적 민생대책 마련=여권은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 마련으로 이반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당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정례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 6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서민 생활부담 경감대책을 협의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이동통신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잠미빛 약속보다는 교육,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총리 안하겠다고 했잖나”

‘박근혜 총리론’이 갈수록 실체를 갖춰가는 가운데 정작 박 전 대표 본인은 이러한 ‘총리 역할론’에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박 전 총재는 총리론이 나돌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조각 당시 임각제의를 거절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내각이 전날 일괄사퇴를 표명하고 청와대에서 총리직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상황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

한 핵심 측근은 이날 “정식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리 이 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다”면서 “설사 제안이 온다 해도 박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다른 장관과 달리 총리는 대통령과 한 몸이고,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는 상태라면 일이 될 수가 없다. 한두 달도 안돼서 파열음이 나면 정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면서 “총리만 뽑은 대통령과 정치지향점도 같고,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되는 사람 중



에서 골라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박 전 대표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근혜 총리’가 현실화될 경우 쇠고기 정국으로 요동치는 위기상황을 단기간으로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만 빚어지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 측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회창 총리를 기용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라. 이 총재는 총리의 권한을 활용하려 들고 김 전 대통령은 이를 견제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김 전 대통령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박 전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면 그것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고, 정권에도 도움이 될 일 없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인 만큼 아무리 ‘실세 총리’라 한들 권한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바람잘 날 없는 국정의 책임만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이 같은 결정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박 전 대표에게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주고, 박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리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지금 총리를 제안한다는 것은 박 전 대표를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총리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청와대에서 총리를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제안이 들어온 것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6·10 집회보며 많은 생각...새각오 출발”

이 대통령 중소기업업회의 “나도 고통 겪었던 민주화 1세대”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제·고유가) 위기도 국민과 기업, 근로자, 정부, 정치권이 합심하면 어떤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날 촛불집회에 언급, “어젯밤 6·10 민주화 항쟁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나도 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민주화 1세대로, 어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제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을 국정난맥상 수습 및 새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유가에 따른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 유가가 150달러가 될지, 200달러가 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면서 “(고유가)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단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미숙 기술혁신협회장. /연합뉴스

계가 올 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청와대 수석과 내각이 일괄 사퇴를 표명하면서 국정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국무위원과 수석들에게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진로에 대해 “기업인 숫자나 고용자 숫자 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변모를 갖고 발전해야 하며 오늘 회의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주호 수석 경질” 홍준표 “나를 따르라”는 시대 끝나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청와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한 데 이어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도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는 11일 “최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하고 황폐해져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교육정책의 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어몰입교육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의사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돼 왔다”며 “이 수석 한 개인의 생각이 그대로 교육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홍준표 “나를 따르라”는 시대 끝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민심이반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국민이 못 알아준다’는 마음이 있을 것이지 잘한다고 해서 다 알아주는 게 아니다”며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회 뉴리더십포럼’ 초청강연회에서 “대통령이 새벽 4시에 기상, 7시40분에 출근하고 밤에도 일하다 자정에야 잠자리에 든다”고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출범 100일 만에 호된 시련을 당하는 건 앞으로 5년간 큰 약이 돼 더 강하고, 국민에 겸손하며, 실수를 줄이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쇠고기 사태로 시작된 현 정국 수습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13일 한나라당 방미단이 돌아 오고 14일쯤 정국 가닥이 잡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면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이 귀가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반정부 민심에 대해서는 “검역주권을 내줬다”는 것에 국민적 자존심이 뒤러져 논리적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국민의 억울하고 기본 나쁜 감정이 해소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통일 시대에 대비한 정치 선진화를 이루려면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고 결판없는 거리로 나오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에너지를 한군데 묶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며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이제! 공무원시험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름방학 공무원시험 합격전략 무료 설명회

일자: 6월 28일 15:30~18:30 당일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집 무료증정

개강 7월 1일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에비공무원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북구청앞 234-0234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 보건직 23명, 전복 16명 9월 27일, 경기 56명 8월 2일, 서울 29명 (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이름만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 전담: 제1회 공-경 9월 27일 209명
● 경기: 제2회 635, 전복 119명 공제
● 서울: 교행 66명, 일명 7.20, 1.133명, 기타 8.17, 656명

7월 1일 (주·아반모집) (현재예약접수중)

● 6개월 (준)회원 80만원
● 1년 (정)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주문양) www.mdgosi.co.kr 222-4560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한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첫진도 시작반) **문제풀이특강**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람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위 ● 선배 합격자들 추천 1등 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개탄동 구시정사거리(중흥동)대만빌딩 옆 철충빌딩 6층